

미국 · 동아시아 화학경기 상승국면

세계 화학시장 활성화 견인 전망 ... 미국은 천연가스 코스트 최대변수

미국 화학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천연가스 코스트 상승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화학협회(ACC)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7.2%에 달해 198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완성제품의 수요강세에 힘입어 화학제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화학시장은 경기 하강기를 벗어나 상승기로 전환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하락 및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및 다운스트림 수요기업들의 재고축적으로 화학산업은 침체기를 겪었으나 최근 들어 회복세를 타고 있다.

따라서 다른 변수를 제외하면 북미 및 극동아시아 경기상승에 힘입어 2004년에는 세계 화학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시장은 북미 및 극동아시아 시장에 비해 성장세가 뒤쳐질 전망이다.

미국의 2003년 9월 화학제품 출하량은 전월대비 1.1% 증가했으며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랜트 가동률도 74.7%에 달해 8월 대비 0.1% 상승했으며 생산량은 7월 및 8월에 각각 0.6%, 0.1% 증가한 이후 9월에 다시 0.2% 증가해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3년 9월 기초화학제품 생산량은 전월대비 0.6% 감소하고 유기화학 및 CA(Chloro-Alkali)를 제외한 공업용 무기화학 생산량도 감소했으나 석유화학, Resin 및 합성소재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 2003년 9월 기초화학제품 출하량은 전월대비 0.5%,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했으며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했으나 2002년 9월에 비해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료코스트는 전년동기대비 16% 상승했다.

몇몇 화학분야는 수요기업들이 아직 재고에 의존하고 있어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 하고 있으며 염소(Chlorine), 가성소다(Caustic Soda), 소다회(Soda Ash) 및 에틸렌(Ethylene) 등 여러 기초화학 분야는 강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은 전년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초화학 외에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LDPE(Low-Density Polyethylene), PP(Polypropylene) 및 PS(Polystyrene) 등의 몇몇 Polymer 시장도 9월 들어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체적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했다.

<Chemical Journal 2004/01/05>